

# ‘유인원의 인류 진화설은 허구이다’ 주제로 교과서 진화론 개정 청원서 교육부에 제출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 회장 이광원)는 2016년 11월 7일(월) 고등학교 「과학」 및 「생명과학 II」 교과서의 ‘인류 진화’ 기술 영역에 현대 과학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오류 부분에 대하여 ‘유인원의 인류 진화설은 허구이다’라는 주제의 교과서 진화론 개정 청원서를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제출하였다.

본 청원은 대학교수(이공) 79명, 중등교사(과학) 72명, 초등교사 66명 등 217명으로 구성된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청원위원회 이름으로 제출되었다.

인류 진화 내용에 있어서 진화 계통수 상에 나타나야 할 공통조상으로 불리는 중간종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인류 진화 계열의 여러 호모족들이 같은 시기에 공존했다는 사실과, 수백만 년 이전 지층에서 현대인의 유골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중간조상으로 불리는 것들의 두개골의 크기가 오히려 현대인의 것보다 커진 현상이 발견되고 있고, 여러 가지 두개골이 한 개체의 것으로 조립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돌연변이로는 새로운 유전정보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 진화를 의미하는 새로운 종을 낳게 하는 진화는 일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소위 쓰레기 유전자(Junk DNA)로 불렸던 것들이 생형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견 등이 주된 청원의 이유이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59) 발표와 함께 세계인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25년 후인 1884년 대한제국시절 한성순보를 통해 ‘순화설’로 처음 소개되었다. 우리는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짓된 사상을 이때부터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한 셈이다.

국내 고등학교 「과학」 및 「생명과학 II」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인류 진화에 대한 내용은 앞서 보았듯이 많은 오류를 담고 있다. 심지어 이미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내용까지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기성세대가 인류 진화의 증거라고 배웠던 내용들 중 상당수는 오류로 드러나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 남아 있는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원사업과 더불어 교과서의 오류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도서들도 출판하고 있다. 더불어 그것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의 시정강의를 통해서 수시로 전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더욱 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홈페이지(http://stror.kr)와 블로그(http://blog.naver.com/str\_bg)를 통해서 일체적인 진화론 교육을 강화해 가고 있다.

# 2017년 사역의 경쟁력은 ‘문화목회’-미래목회포럼

“2017년 사역의 경쟁력은 ‘문화’입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는 ‘문화목회, 미래교회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2017년 새해 기획목회사역설명회 개최하며 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가 인사한 말이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목회비전, 어떻게 세우고, 교회문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문화목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200여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처럼 2017년 목회에 화두가 되는 키워드는 역시 ‘문화’이다.

이날 ‘세상과 소통하는 동네교회 이야기’를 발표하며 첫 강의에 나선 조주희 목사(성암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과 마을 공동체를 일구는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목회자 역할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설교하고 목양하고 교육하는 역할, 마을 사역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추진하는 역할,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배우고 도우는 문화의 장으로 교회가 필요”라고 밝혔다.

문화의 불모지였던 작은 시골마을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기적을 만들어낸 한 교회, 약 30년 전 김포에 문을 연 ‘고촌김리교회’가 바로 그곳이다. 김포지역 특성상 대부분 공단에서 일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집에 반차되다시피 있었던 아이들, 고촌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한 박정훈 목사는 이 아이들



을 불러 모아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작고 구석진 마을에서 자리더라도 꿈을 갖고 실력을 갖추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믿었기 때문이다. 변변한 음악학원 하나 없던 시골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청소년들이 하나 둘 늘면서 지역문화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김포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탄생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2007년 모든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에서의 공연까지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 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꿈의 학교’로 선정돼 현재 4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고촌교회 ‘꿈의 관현악 학교’를 통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발제에 이어 현장 사례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최근 몇 년동안 현장에서 일어난 실제사례들을 소개하고 함께 토론하며 적용가능하도록 이우열 목사(요양

행복한제지교회)가 ‘행복한 책마을 작은 도서관’, 김영진 목사(보령 시온교회)가 ‘농촌 살리는 마을공동체, 축제가 있는 교회’, 최혁기 목사(일산 새로운교회)가 ‘북카페교회, 어렵지 않아요’를 각각 발표했다.

새해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관심에 ‘문화목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일부 교회들에서만 문화목회가 활성화돼 있으며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상태로 문화목회를 하고자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육원장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는 “문화의 시대를 맞아 목회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교회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미래를 만드는 일에 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감동휴면 다큐멘터리 ‘제자도’ 11월 10일 개봉

故 옥한울 목사가 남긴 이야기, 그리고 ‘제자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동 휴면 다큐멘터리 <제자 옥한울 2-제자도> [제작/배급: 파이오니아] 1 감독: 김상철가 교계에 반향을 예고하는 가운데 전국 80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하며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 전하는 다큐멘터리 <제자 옥한울 2-제자도>가 교계 지도자들과 언론의 뜨거운 추천 열

풍속 단체관람 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전국 상영관리스트를 전격 공개했다.

교회 속에 언론 사회와 VIP 사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한국교회 전반에 성찰과 희망의 물결을 불러 일으킬 <제자 옥한울 2-제자도>는 언론과 관객들의 호평에 이어 교계에서도 “전편보다 상당히 폭넓고 입체적인 서술이 인상적인 영화” (박정관 목사), “하

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함을 영화 통해 보았습니다” (이윤호 목사) 등 추천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국 각지의 교회로부터 상영관 문의 및 단

체관람, 대관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2014년 <제자 옥한울>에 이어 또 한 번 전진한 흥행 비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모두에게 전진한 감동과 목적인 메시지를 전할 <제자 옥한울 2-제자도>는 개봉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교계 인력의 높은 관심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진실된 메시지! <제자 옥한울 2-제자도>는 11월 10일 개봉됐다.

##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 가족세트전도 현장훈련을 받으며

나는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삶이 가장 가치있음을 알게 되어 많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새로운 주님의 계화하심 가운데 늦게 신학을 하고 개척교회 전도사가 되어 교회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방법들을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보았다.

더 효과적인 전도를 배우고자 전도폭발 임상까지 훈련 받아 지도자 자격증도 뒀다. 그런데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그 전도법은 소개하고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구해서 좀 뜸다가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힘이 빠졌다. 노력한 만큼 전도의 열매가 없고 거절당하는 상처들이 쌓이면서 전도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것조차 꺼려질 무렵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 박영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나는 앞으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고, 현재는 구리에 있는 은혜로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박영수 목사님이 소개하는 가족세트전도는 숙련숙철의 능력전도이다. 이 전도법은 단지 방법론적인 강의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함께 전도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도록 가르친다.

박영수 목사님을 따라 전도현장에 나간 첫날부터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생 박영수 목사는 52주 1년간 30회 이상 전도집회 현장에 나가며 3천명 이상을 현장에서 전도했다. 박 목사님은 아주 빠르게 강렬한 눈빛으로 전도대상자를 딱 붙잡고, 상대방에게 1분 동안 나를 따라 고백하시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선포하였다.

전도대상자는 박영수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0: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기도를 순

순히 따라 하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나이가 전도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가족관계 등 전도대상자의 정보들을 쪽쪽 속삭일 때도 주지 않고 1, 2분 정도에 다 물어서 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특히 가족세트전도법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급하게 배달하는 사람, 시장상인 음식점 누구나 무차별, 전도현장 어디든지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다.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에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 박 목사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 열정을 배울 수 있었다. 먼저 시장님 앞에 가셨다. 목사님은 정찬하는 말과 함께 동시에 인수하고 영접기도를 시킨다. 평소 과묵하게 보였던 시장님이 어린이 같이 따라한다. 가족신상을 진심하게 말한다. 가족 중 아들이 5살 먹었더니,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대학 들 어갈 때까지 기도해주며 축복해주신다니 시장님 얼굴이 환해진다. 교배까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전체 사진촬영까지 했다.

현장에서 박영수 목사님과 다니며 실제로 전도하며 불신자가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 고백하고 자신의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관계를 맺는 수많은 경험은 그동안 전도에 대한 패배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하여 전도할때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우리 좋은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드린다.

은혜로교회 박사라 전도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생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하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 9일(금) 4박 5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강 사 : 본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 외 4명
- 등록 마감 : 2016년 11월 28일(월) 17:00
- 기 타 : 재학생은 무료, 미 취득 학점이 있을 시 학점 대체함
- 문 의 : 02)2677-0692(본 대학원 행정실)
- 선교 헌금 : 1,000,000원(숙식은 각자 해결해야함)
- 선교 헌금 입금계좌 : 농협 302-0928-2133-91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자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http://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